광양지역 기업 2분기 불황 예상… 6분기 연속↓

원자재가 상승·금리인상 등 요인 광양상공회의소 100여 업체 조사

광양지역 기업들이 올해 2분기에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에 따르면 지역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10일간 조사한 2023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9.6P로 집계됐다.

1분기 82.5P에 비해 2.9P 낮은 것으로 6분기 연속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100 이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73.9P이며 전남은 79.1P로 집계됐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으로 원자재가격 상승(38.9%)과 물가·금리 인상(38.0%)를 꼽았다.

원부자재 수급 불안(7.4%),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6.5%), 주요 수출국 경기 침체(5.6%), 미·중 갈등과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2.7%), 기업 부담 법안 입법(0.9%) 순으로 답했다

중국이 작년 12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리오프링, 경제활동 재개에 나섬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작용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59.3%), 영향 없음(22.2%), 큰 도움됨(9.3), 도움 되지만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큼(7.4%), 부작용이 매우 클 것(1.8)으로 답했다. 다소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에 미칠 영향으로 절반 이상이 영향 없음(55.7%), 긍정효과 있을 것(29.6%), 부정적인 효과(11.0%), 이미 긍정적인 효과 발생(3.7%)로 답했다.

향후 대중국 사업은 대다수인 90.7%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과제로 우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42.3%)과 미·중 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35.6%)를 꼽았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시장은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미래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품목·시장별로 수출 경기가 양극화되는 모습이며 우리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의 회복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를 위한 경제정책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광양읍, 4월4일까지

광양시광양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백순옥)는 오는 4월4일까지 광양읍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7월까지 △캘리그라피 교실(20명) △생활요가 교실(15명) △바리스타 교실(15명) △보자기아트 교실(15명) 등 총 4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광양읍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읍사무소 1층 총무팀(061-797-4919)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 선정은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광양=안영준 기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활동 광양시 옥곡면 맞춤형복지팀

광양시 옥곡면 맞춤형복지팀이 포스코 도배재능 봉사단(단장 최광석),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촛불사랑회, 광양여성라이온스클럽, 선샤인로타리클럽, 새마을부녀회, 나눔이부부봉사단, 백운로타리클럽과 연계해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도배·장판·보일러 교체, 부엌 싱크대 교체, 화장실 세면대 교체, 전기 및 전등 교체 등 주거 전반에 걸친 맞춤 시공으로 대상자에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했다.

촛불사랑회는 250만원 상당의 구들장 시공과 보일러 교체를 했고, 광양여성라이온스클럽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화장실 환경개선을, 옥곡면 맞춤형복지팀에서는 150만원 상당의 부엌 싱크대 개선과 20만원 상당의 이불을 지원했다.

최광석 포스코 도배·장판봉사단 단장은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옥곡면 맞춤형복지팀이 포스코 도배재능봉사단 등 유관단체와 협업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양시 제공

섬 주민 통합 의료서비스 확대 여수시, 10회 1000명 대상

여수시는 의료취약 섬 주민을 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올해 1000명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 의료서비스'는 섬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및 봉사단체가 협력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7회에 걸쳐 섬 주민 404명에 제공한 의료서비스를 올해는 10회에 1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의료통합 서비스'에는 △의료기관 여수백병원, 여수애양병원, 여수편안마취통증의학과의원 △봉사단체 이·미용협회, 일공공일안경원이 참여한다.

남면 안도리 지역주민 150명에 신경외과 무료시술, 만성질환 관리 교육, 상비약품 및 돋보기 제공, 이·미용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여수=이경기 기자

나주 빛가람동, 25일 첫 '동민의 날 기념행사'

행정복지센터 개소 9년만에

빛가람동 동민의날 행사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나주 빛가람동 중앙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1회 빛가람동 동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빛가람동은 지난해 '빛가람동 동민의 날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민 투표로 수요조사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개소일인 '2월 24일'을 '동민의 날'로 선정, 정관 제정·공고했다. 올해 초 '동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중앙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첫 옥외행사를 추진키로 하고 벚꽃 개회시기인 25일 기념행사 개최가 결정됐다.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지역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빛가람동장·주민자치회장·통장협의회장 등 빛가람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0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빛가람혁신도시 16개 이전기관장들의 축하 메시지도 영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빛가람동민의 날 포스터.

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 식전 기념행사로 풍물패, 시립국악단 축하공연, 1부는 선행학생상, 효자·효부상, 장수상, 봉사상, 공로패, 감사패 수여 등 시상 등 기념식, 오후 2부는 초대가수 공연, 동민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빛가람동 마을·기관·사회단체별 부스 제공, 체험부스,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제공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푸짐한 경품추첨도 진행된다.

장영배 빛가람동 동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은 "빛가람동 여러 기관·사회·시민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행추위'에서 자문위원단과 함께 준비했다"며 "첫 기념행사인 만큼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박송엽 기자

수소충전소 구축 협의회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은 지난 21일 남부권 수소충전소 구축 관계자와 '수소충전소 구축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수행자·지자체·환경공단 등 관계자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수소충전소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국내 1호 그린수소충전소(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4월 준공 목표에 따른 공사일정과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인 효성하이드로젠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수소버스와 수소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부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 소식,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보조사업 추가 공모 일정 등도 공유했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구축 중인 수소충전소가 연내 구축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회 외에도 지자체 사전협의, 신속허가 T/F팀 구성 등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하여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전남농기원, 도서·오지지역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11월 말까지 9개 시군 27개 마을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모내기 철을 앞두고 농기계 수리가 쉽지 않은 도서·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순회수리는 농기계 교관 및 농작물 품목별 전문지도사 10명으로 편성된 전남농업기술원·시군 합동수리반이 3월 21일 영광군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9개 시·군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수리반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중 고장으로 방치된 농기계를 마을 회관 등 현장에서 농기계 수리와 안전교육을 병행해 진행한다. 특히, 고령농가와 취약계층, 여성 농업인 등의 농업기계는 직접 방문해 수리를 지원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경운기·관리기·예취기 등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형 농기계는 수리에 드는 부품비 2만원 미만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2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해 수리 비용을 줄여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순회수리 기간에는 농업기계 점검·정비요령, 안전관리 방법 등 농업인 교육을 병행해 자체 수리 능력 배양은 물론 농기계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희상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은 "도로 및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농기계는 수거해 자원 재활용 및 환경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수의계약총량제' 도입·시행 전남개발공사, 공정성 강화

전남개발공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을 위해 수의계약 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폭 강화했다.

전남개발공사는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러한 방식의 수의계약 제한은 타 공공기관 1년간 3~5회 제한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 이는 자칫 특정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수의계약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다 더 많은 업체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전체 계약건수(총 430건)의 64%인 27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연도별 계약 건수는 2020년 91건, 2021년 113건, 2022년 71건이다.

공사·용역·물품 분야 중 용역 수의계약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